



지방의회 중계식

대구시의회 예결특위

대구시의회 예결특위(위원장 박돈규)는 12일 보건복지여성국과 경제산업국 등 내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간다.

■ 교육사회위원회

소관

이날 보건복지여성국 심사에서 권기일(동구2) 의원은 "보건복지부 건강심

층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고소득층 아이들보다 빈혈 폐렴 등 잘 먹으면 나올 수 있는 질환이 많이 나왔다"며 "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의 68%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32%만이 아동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"고 지적했다. 권 의원은 또 "몇개 복지시설을 모델로 실질 심사를 시도해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지원보조금에 대한 차등을 주어야 한다"고 제안했다. 박돈규(달서구1) 위원장

은 "경대 병원이 복지부 공모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에 41억 여 원을 쓰겠다는데 경북대에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다. 양명모

사회복지시설 예산 68%가 인건비 우륵 녹동서원등 관광자원 개발해야

(북구4) 의원은 "한미FTA협상체결을 앞두고 대구시가 시장경쟁을 시켜야 할 민간부분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"며 "과잉지원 시비가 없도록 하라"고 주문했다. 전성배(달성군1) 의원은 문화체육국 심사에서 "시티투어가 2억원씩 적자가 나는데 우륵 녹동서원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하다"고 지적했다.

■ 경제교통위원회 소관

양명모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실 심사에서 "선택과 집중도 없이 연관이 되면 1억원, 2억 원씩 예산을 갈랐는데 지역에서 입김이 센 분들이 이것 해보라고 해서 대구시가 질질 끌려다는 것 아니냐"고 꼬집

었다. 이동희(수성구4) 의원은 경제산업국장에 대해 "자금지원도 어렵고 산업용지도 기술인력도 부

족한 대구가 바뀌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갖춰야하는데 회의적"이라며 대구시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. 이경호(비례대표·한나라당) 의원은 "한국봉제 기술보조사업비 170억원 등 섬유 관련 산업 보조비가 많은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비도 과감하게 줄 수 있어야 한다"며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했다.

문정화기자 moonjh@idaegu.com